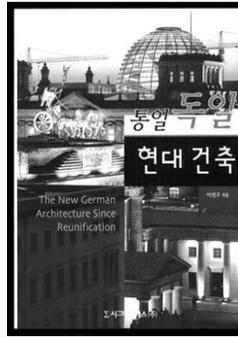


통일 독일 현대건축

김지덕 / (주)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i-tok,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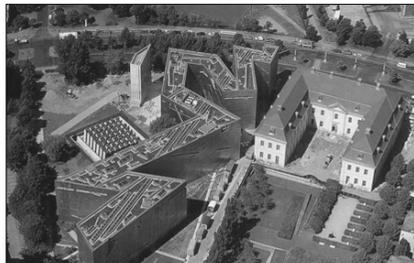
평소 독일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필자는 얼마 전 발간된 「통일 독일 현대 건축」이란 책을 우연히 접하면서 현재 우리 건축사가 당면한 고민들에 대한 좋은 참고가 될만하여 짧게나마 소개하며 건축사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이선구 지음 / 2만8천원 / 시그마 프레스
(주) 발행(02-323-4845)

「통일 독일 현대건축」은 독일로 유학했던 이선구 교수가 「공간」지에 1년 여간 연재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출간한 책으로서 현대건축운동(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의 발상지였던 베를린 시에 성취된 20세기 후반 건축 장면들을 현장감과 시사성에 초점을 두어 조명한 건축 전문 서적이다.

이 책은 19세기말부터 지난 100년간의 정치·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유용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유럽 여러 신생국가 중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로 꼽으며, 세계 어떠한 도시보다도 더 권위적 건축실



바로크 시기의 옛건물 옆의 부서진 '다윗의 별'처럼 보이는 유대박물관(리베스킨트)

현이 가능했던 도시의 여러 창의적 실험건축을 한 눈에 보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현대 건축 운동에서 실현했던 실험정신의 열매를 한국적 현실에서도 비교할 수 있도록 건축론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축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 12장으로 나뉘어 소개되는 이 책은 그 첫 장에 건축이 모름지기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쉬운 오늘날의 우리나라 형편에 중요한 수정을 유발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1920/30년대 '현대운동'을 유발한 당시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게 하는데 글의 초점을 맞추어 독일 건축 교육, 100년 베를린시의 건축들, 도시개발 주제로서 베를린 시 계획, 친환경적 건축, 건축의 주제성과 창의적 표현 경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책 머리말에 "다른 나라 건축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일은 어느 나라의 건축을 빨리 모방하고자 하기보다는 이들의 건축이 어떻게 하여 세계 건축계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자국의 건축을 세계건축문화에 창조적으로 기여케 하는 데 있다"는 저자의 말은 건축사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듯 하다.

저자 이선구 교수는 숭실대학교 건축학부를 창과 하고, 건축학계의 인목을 독일로 향하는 여러 학업에 이바지 하였고, 건축 교육에서 유럽 도시와 건축 관련 하여 여러 저술을 발간한 바 있다. 또한 독일 통일과 베를린 새 계획 등의 여러 문제들이 신교육에 대응 하도록 연구한 모형도 이선구 교수의 저서다.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한 저자의 건축적 노력이 후배들에게 읽을만한 귀한 자료들이라 여겨 다시 한번 신중하게 추천하는 바이다. ㉮



건축가 브루노 타우트와 마르틴 바그너의 '말굽형 단지' 전경(1926년)